

2024  
SPRING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Medical Essay

소아크론병  
뇌경색 발병률 높이는 '경동맥 협착증'  
취장염이란  
수면장애



Care & Love

최영일 교수 · 간담도취장외과



# Contents

발행인 오경승 | 발행일 2024년 3월 | 편집인 이태화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 051)990-3700~2 |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 · 인쇄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 Kosin Spirit

- 04 약속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 06 내가 만난 하나님 이재인 · 권사

## Medical Essay

- 08 소아크론병 최소윤 교수 · 소아청소년과
- 11 뇌경색 발병률 높이는 '경동맥 협착증' 심용우 교수 · 신경외과
- 13 취장염이란 이정욱 교수 · 웨담도내과
- 16 수면장애 김주연 교수 · 이비인후과

## Culture & Life

- 20 금정산 안의 천상계 상계봉 파리봉 노경만 산 · 여행작가
- 24 꽃필 날을 기다리며 김희자 수필가
- 27 원목실 추천도서

## Kosin Inside

- 28 위로(we:路)부터 받은 위로 김연정 간호학과 3학년
- 30 상급종합병원 지정 인터뷰 오경승 병원장
- 34 고신's 스토리 구유진기자 · 기독교보
- 38 Focus View

## Donation

- 44 진료시간표
- 51 KOSin 사랑in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 약속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내년에 Promise를 검진하러 남아공에 가야겠습니다.”

Promise를 수술한 김구상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의료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이 또 다른 Promise를 향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의 남아공 의료선교를 회상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Promise의 병원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원무부장님과 과장님께서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외국인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병원비를 해결할 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오늘까지 2,0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재정이 있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두 손을 들었을 뿐인데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네요.”

남아공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풍으로 말미암아 일정이 늦춰졌고, 다시 일정을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영성훈련을 할 수 있도록, 양평의 하이패밀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해 지는 은혜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남아공을 갈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에서의 일정은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역하느라 녹초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때, 유방암이 발견된 Promise를 한국으로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귀국길에 커피 한 잔을 사먹지 않고, 돈을 비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금이 1,700만원이었습니다. 귀국 후, 뒤풀이 한 번 하지 않고 도리어 모금운동을 펼쳤습니다. Promise의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과 선교에 동참한 여러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2,000만원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치유자, 아프리카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약속합니다.”


귀국길에 오른 Promise가 고백했던 약속이었습니다. 12세의 어린 소녀가 자신의 신체의 변화를 알았지만 집안 사정으로 그냥 지켜 보면서 죽음의 그늘에 살아온 자매가 아프리카의 빛과 치유자가 되기를 약속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언약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고대에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갠 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면서 약속을 파기한 사람은 그 짐승과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창15:17)고 기록합니다.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음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자기희생을 통해 깨어진 약속을 회복하는 의(righteousness)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복음병원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Promise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생명 창조를 위해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병원을 시작하면서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 “영아와 유아의 찬미”.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복음병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도록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병원이 이 시대에 복음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 내가 만난 하나님

 이재인 권사

먼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독생자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악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과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간증문을 쓸 수 있도록 이끄신 것에 대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은 아주 어릴 적 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옆집 친구를 따라서 주일학교에 나간 것이 동기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고 교회에만 가면 선생님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게 마냥 좋아서 다녔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교회에 나가다가 중학생이 된 이후 친구들이 하나씩 돌씩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내내 저를 돌봐주시던 선생님도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되자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차츰 믿음도 희미해져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서 믿음이 점차 사라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절 시험에 들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났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힐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더욱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동안 제가 주님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던 것은 저의 알팍한 믿음을 더 굳혀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이나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모두 다 주님의 뜻이었겠지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혼란을 없애주신 우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그동안의 저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해온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인사 잘 하고, 예의 바르고,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기 자랑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력형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의지만을 믿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고백




하지만 가슴으로는 얼마나 절절하게 느끼는지 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구원을 확신 하느냐는 물음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분과 함께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그 분과 떨어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데 제 생각의 갈래는 자꾸만 복잡하게 흩어지고, 모든 것을 머리로, 논리로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진로문제와 앞으로의 삶과 사랑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야 비로소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확신하지 못한 것이 저의 자만이고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 선배의 도움으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다같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죄가 너무도 많음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속의 불평과 짜증, 원망들이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급할 때만 주님을 찾았던 지난날이 너무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저의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거나 방향의 시기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저의 대부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사람을 벗어나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 임을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흔들리는 연약함을 지닌 저이지만 이 모든 것들 알게 해주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제 삶의 모든 것, 아니 삶 자체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 소아크론병

 **최소윤** 교수 · 소아청소년과



최근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서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등의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다. 소아 크론병으로 면역조절제를 복용 중인 환아들이 혹시나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이나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않을까, 감염으로 인해 크론병 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호자들의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의 어느 부위든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염증의 재발과 관해가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 중 하나이다. 어린 연령부터 고령에 걸쳐 전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고, 주로 15-30세 사이에 호발하며, 전체의 약 25%는 소아청소년기에 발병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소아청소년기 크론병 발병률은 2000년 이후 급증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중에도 소아 크론병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식습관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장내 미생물과 인체 면역시스템 사이의 이상 반응이 지속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크론병의 전형적인 주증상은 만성 설사, 복통, 체중 감소, 혈변 등이다. 하지만 소아 크론병에서는 전형적인 증상 없이 성장 저하, 항문 병변, 빈혈 등과 같은 장외 증상만 존재하는 경우가 약 22% 정도 된다.

실제로 키 성장 지연으로 성장클리닉을 다니며 성장호르몬도 맞고 있는 상태에서도 키 성장이 잘 되지 않아 소아소화기영양분과에 의뢰되어 크론병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고, 항문 농양과 누공이 반복되어 3번이나 항문 수술을 받은 뒤에서야 크론병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장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기에는 장 증상 없이 성장 지연, 항문 주위 병변 등의 증상만 있더라도 한번 의심해보는 게 필요하다.

소아 크론병 진단을 위해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기관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혈액 검사와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부터 복부 CT, MRI 등의 영상학적 검사, 캡슐 내시경 검사 그리고 위대장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을 하게 된다. 소아청소년도 내시경이 가능하다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숙련된 소아 내시경 전문의와 주의 깊은 진정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안전한 내시경이 소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크론병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을 꼭 시행해야 한다.


소아 크론병은 성인에 비해 중증인 경우가 많고, 진단 시부터 침범 부위가 넓은 경우가 많으며,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발병을 하면 성장 장애나 사춘기 지연을 경험하기 쉽다. 어린 나이에 진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병 기간이 길고, 사춘기를 지나는 정서적 불안정 시기이기도 하며, 스스로의 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기에 진단되는 크론병의 치료는 차별화되고 적극적이며 좀 더 가족 중심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

소아 크론병의 치료 목표는 증상을 조절하고 만성 염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며, 내시경적인 점막



치유를 유도하여 재발을 막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기존의 치료 전략은 질병 초기에 스테로이드와 같은 전통적인 약제로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 중에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지거나 치료가 듣지 않거나 스테로이드에 의존하게 되면 다음 단계 약제로 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전략이었다. 최근에는 점막 치유를 증대시키며, 키 성장을 회복하고, 합병증을 감소시키며, 스테로이드 사용이나 수술률을 감소하기 위해 생물학 제제와 면역 조절제를 질병 초기부터 시작하는 치료 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소아 크론병 치료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점으로는 첫째, 성장, 발달, 영양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소아에서 성장 부진 및 영양 결핍은 질병으로 인한 섭취량 부족, 흡수 장애, 만성 염증으로 인한 영양 요구량 증가, 염증과 관련된 염증 매개 물질의 직접적인 영향,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인슐린양 성장 인자의 억제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완전 장관 영양은 특수 액상 영양 식이만을 섭취하는 치료법으로 크론병에서 일차 관해 유도 치료와 재발 시의 치료로 스테로이드만큼 우수한 효과가 있고, 부족한 영양을 제공할 수 있어 소아청소년 크론병 환자들의 일차 치료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진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병 기간이 길고, 장기간의 약물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이를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자티오프린과 같은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기 전에 약물 대사 관련유전자 검사를 통해 변이를 확인하거나, 약물 대사체 검사를 통하여 치료적 약물 농도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소아 환자에서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함께 겪으므로 치료의 순응도가 떨어지고 사회적인 부적응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는 환자의 질병 악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지지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때로는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아 크론병으로 면역조절제와 생물학제제 등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건강인에 비해서는 외부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이 났다면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기회 감염의 위험이 좀 더 있을 수 있으나, 치료가 정상적인 면역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분은 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이 크지 않다. 하지만, 감염으로 인해 질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항상 손씻기를 습관화하고, 유행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과 인플루엔자 사백신 접종 등의 감염 관리에 주의하면서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소윤** 교수 | 소아청소년과

■ 전문진료분야

소아소화기영양분과(소아소화기질환 (위장관, 간담취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 뇌경색 발병률 높이는 '경동맥 협착증'

## 40세 이상 만성질환-흡연자는 정기 검진을

 **심용우** 교수 · 신경외과



40대 남성 A 씨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주 5회 이상 꾸준한 운동을 하며 또래에 비해 훨씬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을 위해 등산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시력 이상과 함께 한쪽 다리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A 씨를 위협한 질환은 바로 조용한 암살자라고 불리는 '경동맥 협착증'이다.


목에 위치한 혈관인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에 공급한다. 뇌로 가는 모든 혈액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뇌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 원활한 뇌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경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해져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한다. 경동맥 협착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과 함께 스트레스와 흡연,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해 혈관이 막히는 죽상동맥경화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경동맥 협착증 환자 수는 2012년 약 3만 명에서 2022년 약 12만 명까지 10년 동안 4배 이상 급증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며 40대 이상부터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일시적인 시력 소실, 어지럼증,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중장년층이라면 즉각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경동맥의 절반 이상이 막혀도 대부분의 환자가 특별한 자각증상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경동맥 협착증이 뇌경색으로 이어져 뇌세포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는 물론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경동맥이 60% 이상 좁아진 경우 5년 내 뇌경색 발생률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초음파 검사, CT, MRI를 이용한 경동맥 조영술 등을 통해 쉽게 경동맥 협착증 검사가 가능하며 협착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혈소판제제와 같은 약물치료를 실시하며 경동맥 내경이 약 70% 이상 좁아진 경우에는 혈관 내벽의 죽상경화반을 제거하는 내막 절제술이나 혈관 우회로를 만드는 외과적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뇌혈관 중재술의 발달로 인해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역시 많이 시행하고 있다.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 허벅지에 위치한 동맥을 통해 금속 그물망인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 벽을 넓혀주는 시술로 다른 외과적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이며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경동맥 협착증을 방지하면 뇌경색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증상이 없는 무증상 협착증의 경우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흡연자의 경우 40세를 넘어가면 주기적으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꼭 해볼 것을 권장한다. 혈관이 많이 좁아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추적 검사와 치료를 하면 심각한 후유증과 사망을 유발하는 뇌경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용우** 교수 | 신경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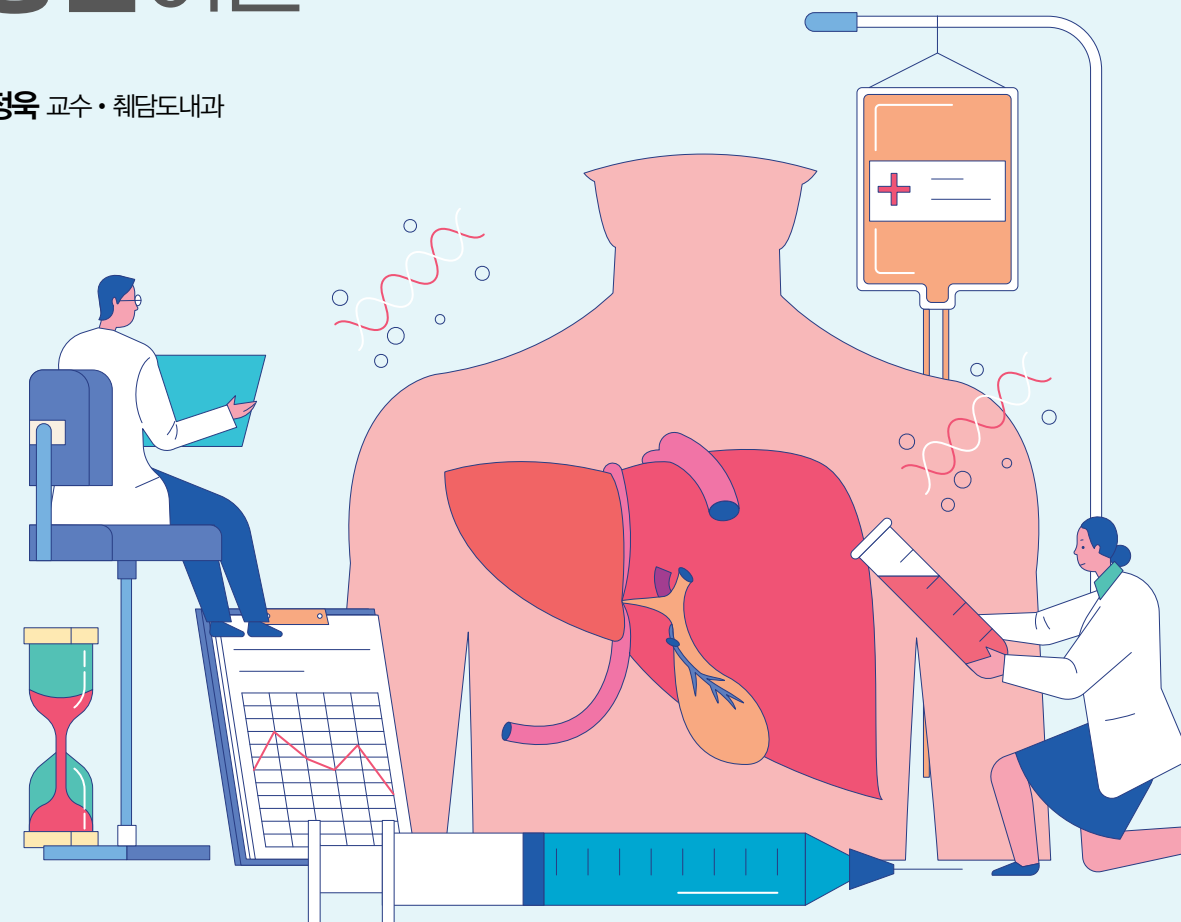
■ 전문진료분야

뇌혈관질환, 뇌종양, 뇌혈관중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 췌장염이란

 이정욱 교수 · 췌담도내과



췌장염이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트립신 등을 포함한 여러 췌장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췌장 세포 내에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다. 정상적인 소화관에서 활성화된 췌장 효소는 단백질 및 지방의 소화에 관여하게 되나 비정상적으로 췌장 세포 내에서 활성화된 췌장 효소는 췌장 세포를 파괴한다.

이로 인해 췌장 분비샘의 파괴 및 췌장의 국소 또는 미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췌장염이라고 한다.

이러한 췌장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고 급성 췌장염은 췌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만성 췌장염은 반복되는 급성 췌장염으로 인하여 췌장의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파괴되어 소화불량, 지방변, 체중감소 등 외분비 기능 장애 증상 및 당뇨 등 내분비 기능 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급성 췌장염의 원인은 40%에서 담석, 30%에서 알코올, 2%에서 고중성지방산혈증, 그리고 드물게 고

칼슘혈증이거나 자가면역 질환, 약물, 복부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약물, 외상, 바이러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담석이 바터 팽대부에서 담석과 주췌관의 합류부를 폐쇄하게 되면 담즙 정체성 황달 및 췌장액의 정체에 의한 담석성 췌장염이 발생하게 되며 48시간 이내에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통한 담석의 제거가 필요하게 된다.



알코올성 급성 췌장염은 알코올의 양의 증가와 비례하여 그 위험도가 올라가게 된다. 대개 여성에서는 하루 3잔 이상, 남성에서는 하루에 4~7잔 이상에서 발생하나 사람마다 그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량의 알코올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알코올 섭취하는 사람에서는 10% 미만에서만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코올성 급성 췌장염 발생에는 다양한 인자가 작용한다는 것을 뜻하고 알코올에 의한 급성 췌장염의 기전은 다양하게 제시되나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여러 급성 췌장염의 원인 중 담석에 의한 경우는 만성화되는 경우가 없으나 알코올이나 흡연, 자가면역 질환 등에 의하여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거나 괴사성 췌장염 등 심한 급성 췌장염 후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급성 췌장염은 명치부나 좌측 복부나 등, 가슴, 옆구리 등에 통증을 동반하며 발생 후 통증의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토한 후에도 복통이 경감되지 않는다. 환자는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후복막강에 있는 췌장에 염증이 발생하면 반듯이 눕고 다리도 펴면 경우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급성 췌장염의 대부분 80% 정도는 수일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면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고 회복되는 경과를 보인다. 그러나 20%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하고 이 경우에는 일부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경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패혈증 등 생체 징후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교정 가능한 원인 특히 담석 등을 감별하여 내시경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결정이 중요하다.

급성 췌장염 초기에는 췌장의 휴식을 위해 일시적으로 금식을 권유하나 통증이 호전되면 가능한 빨리 경구 식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장 점막의 방벽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충분한 수액 공급이 필요하며 췌장염은 세균성 염증 보다는 췌장액의 유출에 의한 화학적인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감염 증상이 없는 한 예방적 투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중증 췌장염에서는 합병증으로 이차 감염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투여한다.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의 생체 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충분한 소변량을 유지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불안정한 경우 중환자실로 이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성기 치료가 성공적으로 환자를 호전시켰다 하더라도 4주 이후 지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췌장 가성낭종, 구역성 췌장 괴사(walled off pancreatic necrosis) 등의 발생 확인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증상 발생 시 내시경적 또는 경피적으로 배액술이나 괴사 조직 제거 등의 비침습적 방법부터 수술까지 단계적 접근법(step up approach)을 이용하게 된다.

초기 치료 후에는 췌장염의 유발 원인에 대하여 치료를 시도하여 재발을 억제해야 한다. 알코올성 췌장염 환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금주를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음주이다.

췌장염 치료 후에도 금주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통증을 동반한 췌장염은 치료 후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통증이 재발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퇴원시켜야 하며 술을 마시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췌장염은 쉽게 회복되는 경한 간질성 췌장염부터 심한 괴사성 췌장염으로 인한 중환자실 치료 및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으며 원인에 따라 급성 췌장염에서 만성 췌장염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보통 발생 시 주의 깊은 병력 청취 및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그 원인을 감별하여 담석성 췌장염의 경우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등을 이용하여 원인 제거가 필요하며 지연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배액술이나 괴사 조직 제거 등의 비침습적 방법부터 수술까지 단계적 접근법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음주나 흡연 등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고중성지방산의 경우 괴사성 췌장염의 발생율이 높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약제 투여를 통하여 교정이 필요하다. ➔



**이정욱** 교수 | 췌담도내과

■ 전문진료분야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시술	외래	시술	외래
오후	시술	시술		시술	시술



# 수면장애

 김주연 교수 · 이비인후과



## 수면장애의 정의와 유형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 하루 약 8시간을 잠으로 보낸다. 좋은 수면은 뇌기능과 건강에 필수적으로 자는 동안 신체기능 회복과 성장호르몬 분비, 세포재생, 뇌대사물질의 청소와 특히 인지기능과 기억력, 뇌 발달에 중요하다. 수면 중에는 뇌파, 안구운동, 근전도와 호흡 및 순환기계의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수면장애는 수면구조와 분포에 문제를 야기한다.

1920년대 수면 중 특징적인 뇌의 전기활동이 측정되고, 꿈꾸는 잠인 렘수면(rapid eye movement, REMs)과 하룻밤에 90분을 한사이클로 4-5번 반복되는 수면주기가 밝혀진 후, 현재 수면장애는 크게 불면증, 수면관련 호흡장애, 과다졸림의 증후장애, 하루주기 리듬수면각성장애, 사건수면, 수면관련 운동장애 등 6개의 대분류에 68개의 중분류 질환이 존재하고, 세부 분류까지 하면 100여 개의 질환이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병태생리를 포함하는 수면질환들을 아우르고 있어, 다양한 임상 진료과 및 심리, 간호, 치의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 질환 현황과 최근 추세

국내에는 수면의학이 도입된 지 약 30여년이 지났다.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보험급여화로 수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수면장애 환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보면, 2022년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9만 8819명으로 2018년(85만5025명)보다 28.5% 증가했다.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환자연령대는 60대로 23%를 차지했고, 이어 50대 18.9%, 70대 16.8%, 40대 14.1% 순으로 조사됐다.

## 진단과 치료

일 년을 기준으로 성인의 1/3가량 호소하는 흔한 증상인 불면증은 주로 면담을 통한 증상에 근거하여 진단하게 되는데, 수면일기, 주간졸음설문지(ESS), 불면증 정도척도(ISI) 등 다양한 설문지를 통한 평가 방법들이 있다.

불면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로 나뉘는데, 인지행동치료는 약물사용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수면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을 위한 1차치료 방안이다.

주간과다수면은 피곤함과 구별되는 낮동안의 졸림 증상으로, 일차적으로 기면병과 특발과다수면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수면부족, 수면무호흡, 하지불안증후군과 같은 수면장애와 동반하여 이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루주기 리듬수면각성장애는 보통 사춘기에 시작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위상지연장애와, 이른 새벽 일어나고 이른 저녁에 졸린 노인층에 흔한 위상 전진장애, 교대근무장애, 비행기 시차장애 등이 있다. 현재 가장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 중 하나는 2,000~2,500 lux의 밝은 광치료가 있고, 때로는 생체시계 재조정을 위한 멜라토닌제 복용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사건수면은 잠에 빠져들거나 깨어날 때, 혹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원하지 않게 발생하는 신체적인 사건과 경험을 뜻한다. 소아기에 가장 흔한 몽유병이나 야경증은 잠이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고, 깨어나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대개는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감소하는데, 사건수면 중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발요인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수면 중 렘수면행동장애는 수면 중 과격하고 생생한 꿈을 꾸면서 이 꿈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소리를 지르거나 난폭한 행동이 특징으로 수면의 후반부에 주로 발생하고 잠에서 깨면 대개 꿈의 내용을 잘 기억한다. 이러한 렘수면행동장애는 약물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파킨슨병이나 치매 등 신경퇴행성질환의 위험인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수면호흡장애는 단순한 코골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경인지장애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어 수면다원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시경검사 등으로 무호흡을 일으키는 기도폐쇄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수면과 각성을 구별하고 평가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면다원검사이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중 뇌파, 안구전위, 근전도, 심전도, 호흡노력과 공기 흐름, 혈중산소포화농도, 체위 같은 여러 가지 생체신호를 기록하는 진단검사로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기면증과 렘수면행동장애 등 이차성 불면증의 원인을 찾고 감별하는 데 유용하다.

약물유도 수면내시경검사는 약물로 수면을 유도하여 수면 중 상기도의 변화와 폐쇄부위, 양상 등 실시간 변하는 상기도의 동적 패턴을 3차원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어, 결국 환자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기도 평가방법이다.

### 1) 수면위생(Sleep Hygiene)

수면위생은 수면환경에 대한 교육(침실 내 환경을 최적화하기)과 취침 전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 피하기(격렬한 운동이나 음주) 등과 같은 잘못된 수면습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불면증을 비약물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예방한다.

- ① 다음날 피곤하지 않을 정도만 주무십시오.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나, 시간이 너무 길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 ②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낮에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하지만 취침 전의 격렬한 운동은 피합니다.
- ④ 자는 동안 심한 소음은 잠을 방해합니다.
- ⑤ 침실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합니다.
- ⑥ 과식도 좋지 않지만, 허기가 들면 우유와 같은 간단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⑦ 장기적인 수면제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⑧ 저녁에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음료,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처럼 카페인 든 음료는 피합니다.
- ⑨ 술과 담배는 취침 중 자주 깨게 하므로 피합니다.
- ⑩ 잠에 들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잠이 오지 않고, 힘들 때는 차라리 너무 환하지 않게 불을 켜고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2) 자극조절법(Stimulus control therapy)**

잠자리에서 각성을 줄이고, 잠자리와 수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치료요법으로 치료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졸릴 때에만 잠자리에 든다. (2) 잠자리는 잠을 자거나 성관계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3)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서 나와, 졸릴 때 까지는 다시 눕지 않는다. (4)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해서 규칙적인 수면과 각성 리듬을 만든다. (5) 낮잠을 자지 않는다.

**3) 수면제한법**

(1) 자신이 원하는 기상시간을 정한다. (2) 몇 시간 정도 자면 만족할지 생각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취침시간을 정한다. (4)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에 비해 실제 수면시간이 85% 이하라면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15분씩 줄이고, (5) 90% 이상 취침했다면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15분씩 늘린다.

**4) 인지치료**

수면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여 불안이나 각성을 감소시키는 치료방법으로 불면으로 인한 지나친 걱정이나, 8시간 이상 꼭 자야 한다는 강박적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

**5) 이완요법**

가슴이 아니라 복부에 의식을 집중하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복식호흡과 몸의 근육군에 힘을 주었다 이완하는 점진적 근육이완법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가진단도구**

**1) 주간졸음설문지(Epworth Sleepiness Scale, ESS)**

TV 시청이나 대화 등 8가지 일상적인 상황에서 졸린 정도를 0-3점으로 분류하여, 총점 10점 이상인 경우 심한 주간과다수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상황	전혀 아님	조금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이 있다
앉아서 책을 읽을 때	0	1	2	3
텔레비전을 볼 때	0	1	2	3
공공장소(모임, 극장 등)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0	1	2	3
1시간 동안 운행 중인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0	1	2	3
점심 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때	0	1	2	3
오후에 상황이 허락되어 누워서 쉬고 있을 때	0	1	2	3
앉아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0	1	2	3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릴 때	0	1	2	3

**2) 불면증 정도척도(Insomnia Severity Index, ISI)**

불면증의 심각성을 평가하고자 고안된 것으로, 총 7문항이며 진단결과 점수합계가 15점이상인 경우는 임상적인 불면증으로 간주된다.

지난2주동안 귀하의 수면문제의 심한 정도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전혀 없다	약간	중간 정도	심하다	매우 심하다
잠들기 어렵다.	0	1	2	3	4
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자주 깬)	0	1	2	3	4
쉽게 깬다.	0	1	2	3	4
현재 수면패턴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0	1	2	3	4
경험하는 수면장애가 일상기능을 어느 정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삶의 질 저하 측면에서 수면 장애를 다른사람이 얼마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현재 수면장애에 관하여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0	1	2	3	4

**3) STOP-BANG 설문지**

5점이상이면 특히 중증의 폐쇄 수면무호흡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환자는 수면다원검사를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

<b>S</b> (Snoring): 코골이	방문을 달아도 바깥에서 들릴 정도의 큰소리의 코골이인 경우 1점
<b>T</b> (Tiredness): 피곤함	주간에 졸립거나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 1점
<b>O</b> (Observed apnea): 수면 중 무호흡이 관찰됨	수면 중 타인이 환자의 무호흡을 관찰한 경우 1점
<b>P</b> (Pressure): 고혈압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거나 치료 중인 경우 1점
<b>B</b> (body mass index, BMI):비만 정도	체질량 지수 35kg/m <sup>2</sup> 이상인 경우 1점
<b>A</b> (Age): 나이	50세 이상인 경우 1점
<b>N</b> (Neck circumference): 목둘레	목둘레가 남성 17인치 이상, 여성 16인치 이상인 경우 1점
<b>G</b> (Gender): 성별	남성인 경우 1점



**김주연** 교수 | 이비인후과


**■ 전문진료분야**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 무호흡증, 코성형클리닉, 코피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 금정산 안의 천상계 상계봉 파리봉

 노경만 산·여행작가



상계봉(640m)과 파리봉(615m)은 금정산을 이루는 여러 봉우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산인 양 장군봉과 고당봉에서 이어지는 긴 능선을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다. 상학산이라는 이름이 고시 지명인 이유일 것이다. 금정산성 성곽으로 연결되며 금정산에 포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상계봉과 파리봉으로 가는 길은 아주 다양하다. 북구에서는 만덕동에서 상계봉으로 바로 오를 수 있고, 화명동에서는 산성마을 거쳐 파리봉으로 오를 수 있다. 금정구나 동래구에서는 금강공원의 케이블카를 타거나 만덕고개를 거쳐 금정산성 남문으로 오를 수 있다.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에서 203번 버스를 타고 남문 정류장에서 내린 후 산행을 시작하는 길을 많은 산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 어쩌면 천상계일지도 모르는…….

성곽아래 정류소에서 남문마을로 가는 포장길을 따라 걸으면 30여분 정도면 남문에 도착할 수 있다. 가끔 주민들의 차가 오가긴 하나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다. 완만한 오르막길을 산책하듯 걸



을 수 있다. 동행이 있다면 길가 군데군데 있는 산장 간판을 가진 음식점으로 들어가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며 보다 여유로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정류소에서 성곽 능선을 따라 산행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길은 금정구 동래구 시가지가 조망되고 멀리 광안대교와 해운대 방향 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다. 처음 대륙봉을 오를 때 조금 가파른 오름길이지만 하여도 조망이 트이기 시작하면 제2망루를 거쳐 남문에 다다를 때까지 무난한 능선의 길이 이어진다.

남문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온 길과 백양산 쪽 만덕고개에서 오른 길 등과 만난다. 상계봉으로 가는 길은 2개가 있다. 헬기장이 있는 봉우리를 타고 넘는 길은 나무계단이 있는 오르막 길이다. 우측으로 난 임도를 택하면 널찍한 길을 따라 편안하게 걷다가 수박샘을 지나고 난 후 돌계단으로 된 오름길을 만난다. 그 오름길은 헬기장 봉우리와 제1망루 사이의 안부 갈림길에 연결되고, 다시 우측으로 방향을 잡고 오르면 등 뒤로 조망이 트이기 시작할 즈음 제1망루의 돌담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제1망루는 상계봉과 파리봉으로 가는 갈림길이기도 하다. 상계봉은 지척에 있다.

상계봉은 산정 형상이 마치 닭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불린 이름이라고도 하고, 일설에는 부근의 봉우리 중 가장 높고 있어 새벽이 다른 곳보다 빨리 온다 하여 새벽을 알리는 <닭 계(鷄)> 자를 썼다고도 한다. 실제로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바위 중에는 <닭벼슬바위>로 불리는 바위가 있다. 학과 모습이 닮았다고 하여 상학봉이라 불리기도 한다.

상계봉은 무엇보다 조망이 뛰어나다. 동서남북으로 거침없는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금정산성을 이루는 능선이 다 굽어보이고, 무엇보다 해운대쪽 바다에서부터 부산 시가지를 지나 낙동강 물줄기 너머 김해평야까지 아우르는 풍경은 정말 일품이다. 아무 바위 위어나 걸터앉아 바라보면 그야말로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다. 어쩌면 상계라는 이름은 천상계(天上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실없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봉우리 근처에는 잘 차려진(?) 신선의 밥상이 놓인 거대한 석벽이 있는데, 그것 역시 우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수정처럼 빛나는…….


파리봉 가는 길은 왔던 길을 뒤돌아 제1망루를 지나야 한다. 능선을 따라 걷다보면 능선이 끝나는 곳에 파리봉이 있다.

<파리>는 순우리말로 유리 또는 수정을 뜻한다. 수정처럼 빛나는 산정에 코끼리가 낙동강 물을 마시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가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전한다. 다른 이름으로 파류봉(波留峰)으로도 불리는데, 조선 시대 이곳에 망미루가 설치되면서 별장이 파견되어 머물렀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아래에서 바라보면 거대한 바윗덩어리가 유난히 빼어나게 우뚝 솟은 모양새다. 신선이 지니고 다니던 수정구슬 몇 개가 무심코 떨어진 것일까? 어떤 날에 멀리서 바라보면 수정처럼 빛나는 파리봉이란, 바라볼수록 감탄이 절로 나는 풍경이다.

파리봉 역시 전망이 뛰어나 금정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낙동강과 김해 평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봄이 멀지 않은 이즈음 상계봉과 더불어 계절이 가고 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산이다. 그리고 동해에서 떠올라 낙동강 너머로 지는 해의 모습을 마중하거나 배웅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산이다.

내려가는 길은 거대한 바위 사이에 놓인 나무계단을 가파르게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나면 오래지 않아 금성동 공해마을에 다다라 산행을 마칠 수 있다. ♪

# 꽃필 날을 기다리며

 김희자 수필가

빈 들판 넘어 봄이 오고 있다. 마른 풀숲에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지상의 꽃 잔치가 시작된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 뛰는 삼월. 어제는 들로 나갔더니 도랑 물소리가 발목에 감겼다. 내 몸보다 먼저 우주에 봄이 와 있었다.

상수리나무에 잎이 돋자, 새가 날아든다. 나뭇가지에 봄물 도는 소리가 들린다. 저 나무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목에 동이 터 오면 비로소 아침이 열린다. 햇살은 우듬지에 걸려 반짝이고, 매달 보름이 되면 둥그런 달이 휘영청 걸리기도 한다.

상수리나무 우듬지에서 시선을 돌리면 마을 뒤에 있는 설흘산이 눈에 들어온다. 어머니의 젖무덤 같은 산이다. 응봉산자락의 매봉산이 아버지를 닮은 산이라면 설흘산은 어머니를 닮았다. 그곳은 어머니의 품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구름이 오가며 놀기도 한다. 고향집에 머물러 살기로 한 후 집 단장에 분주하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 어찌하면 멋진 정원을 꾸밀 수 있을까. 일꾼을 불러 꾸밀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손수 화단을 만들었다. 사랑채를 수리할 때 구들장을 거두어 텃밭에 쌓아두었다. 구들장으로 화단을 만들면 의미 있을 거로 생각했다. 화단을 꾸미던 날, 마음이 앞선 나는 남편보다 먼저 무거운 구들장을 마당으로 가져다 날랐다. 남편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타나며 웃음을 쳤다. 예쁜 정원을 만들겠다는 신념에 나는 돌이 무거운 줄도 몰랐다.

정성 들여 구들장을 세우고 단장했더니 근사한 화단이 되었다. 구해둔 꽃씨로 빈 땅을 채우고, 꽃나무를 화단에 심으니 내 가슴에도 꽃이 피는 것 같았다. 화분에 있던 수국과 동백나무도 옮겨 심었더니 오래전부터 자랄 한 듯 자연스러웠다. 나무 아래와 돌 틈 사이에 키 작은 들꽃을 심고 물을 듬뿍 주었다. 이제 저 생명들은 나의 반려 식물이다.

언 땅에 심은 튜립 구근이 땅 위로 고개를 쭉 내밀고 있다. 싹눈 난 작약을 심었더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키를 키우고 있다. 꽃 필 날을 기다리니 마냥 설렌다. 봄이 오고 여름 가을이 되면 꽃 천지가 될 것이다. 화분을 사고 향아리란 향아리는 다 모았다. 뒷집 엄마 손에서 떨어진 향아리까지 들고 와 꾸몄다. 하나들……. 화분 수가 늘고 꽃도 늘어난다. 향아리 화분을 물로 씻었더니 자기 색을 드러내어 고풍스럽다. 꽃과 잘 어울려진다.

아침에 마당으로 나가면 반려 식물과 대화하며 눈을 맞춘다. 어느 꽃이 먼저 필까. 기다리지 않아도 꽃 손님은 하나들 방문한다. 꽃이 오기 시작하니 마당이 환해졌다. 꽃이 제 몫을 다

하는 동안 나는 황홀경에 빠진다. 씨앗에서 열매까지의 길……. 그 길을 그리며 꽃식물에 응원한다.


날마다 화분을 만지고 꽃을 들여다보는 나를 보며 어머니는 씩 웃으신다. 예전 같으면 쓸데 없는 짓 한다고 나무라셨을 텐데. 내가 고향집을 보존하기로 한 후엔 오히려 흐뭇해하신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다하고 화분과 꽃모종을 샀다. 꽃이 만발한 마당을 생각하면 마음에 도 꽃이 피었다. 책이 있는 집. 몇 해 전에 귀하게 얻은 서적이 꽃과 함께 이제야 빛을 발할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마음 둘 곳이 없었다. 무의미하게, 생리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또한 버겁고 우울했다. 그 어디에도 기쁨 곳이 없었다. 하지만 꽃을 보면 배시시 웃음이 피었다. 생각의 더미가 무거울 땐 처마 끝에 걸린 허공에다 마음을 걸었다. 사람에게 다친 마음을 자연에 위로 받기 위해 꽃나무를 심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흙이 좋았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큰 걸 내려놓았다. 한동안 글쓰기를 잊고 살았다. 그러다 한가해지면 왜인지 허전했다. 펜을 놓고 있었지만, 경계의 저편 아득히 그리움이 존재했다. 그럴 때는 들로 나가서 자연과 마주했다. '삶에서 만나는 가장 심오한 교과서는 바로 자연'이라고 말한 헤르만 헤세의 명언을 기억하며 바지랑대가 있는 빨랫줄에 자연에 사는 즐거움을 내걸었다.

오래전에 누군가 그랬다. 사람을 믿지 말고 자연과 가까워져라. 사람은 다치게 하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다. 살아보니 그 말이 맞았다. 이 세상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라며 원망할 필요도 없다. 머리를 숙이고선 알았다. 해바라기처럼 가끔 머리를 숙이고 살아갈 일이라고.

긴 겨울 지나 무심히 피고 지는 꽃처럼 묵묵히 길을 걸으며 또 다른 꿈을 꾸다. 오직 내가 지지하고 기댈 곳은 고향 땅 자연임을. 아직은 밤 기온이 차서 걱정되지만,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꽃나무와 눈을 맞추며 애정을 표시한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전원에서 살고 싶었던 꿈이 이루어졌다. 옛집을 되살려 살아가는 재미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다.

환한 봄날, 나는 지금 풍경 한 자락 품고 세월을 건너고 있다. 붉은 모란이 피고 연분홍 해당화가 피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마당을 서성이고 있다. 내 삶이 환희로 다가오길 기다리며 매일 옛집 마당을 꾸미고 설흔재를 단장한다. 이제 내게 남은 건 꽃필 날을 기다리며 자연과 사람에게 예술로 보답하는 삶이리라. 

## 원목실 추천도서



사순절에 누리는 회개의 기쁨  
이재성 | 2023 | 이레서원

### 책소개

재의 수요일에서 부활절까지 47일간,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전능감을 인정하고 이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안내하는 매일 묵상집이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를 통과하면서 목회상담학자인 저자는 사람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을 보며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림으로써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했던 일을 떠올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은 비말 전파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얼굴을 가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저자는 질문한다. 하루에 한 편씩 읽도록 구성된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그동안 애써 회피하고 있던 자신의 죄와 자기중심성, 우울감 또는 열등감을 깨닫게 되는 아픔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를 다 고백한 후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 저자소개 | 이재성

고려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교수이며, 김포포꾸는교회 상담목사이다. 공군 목사로 사역하면서 한 영혼의 영적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려신학대학원(M.Div.)과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원(Th. M.), 밴더빌트 대학교(Ph. D.)에서 목회상담학을 공부했다. 미국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와 목회신학회(Society Pastoral Theology), 국제실천신학회(International Academy of Practical Theology), 한국목회상담협회와 복음주의상담학회 등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강박적인 그리스도인』, 『우울증,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 『다시 시작하는, 엄마 수업』, 『공홀, 예수님의 심장』,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아픔』 등이 있다.



의학의 대가들  
앤드류 램 | 2023 | 상상스퀘어

### 책소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의학의 역사적 순간들과 그 순간을 만든 영웅들의 이야기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 이낙준 강력 추천★


《의학의 대가들》은 의학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으나, 천사를 누리지 못했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뛰는 심장을 수술하기 위한 경쟁에서 환자를 연달아 죽이고 심장 이식의 길을 연 외과의사들, 환자를 고의로 감염시켜 치료하겠다는 '이단적인' 아이디어를 내 암 치료에 영감을 준 뉴욕의 외과의사, 출산 중 사망한 산모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풀었지만 그 발견으로 오히려 배척당한 헝가리 의사. 이들은 병자를 치료하고, 고통을 덜어주고, 죽음을 늦추려는 인류의 끝없는 원정에 이정표를 세웠다. 이 책은 그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목격하듯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생생함은 이 책의 가장 뛰어난 장점이다. 단순히 의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나열했다면 이토록 흥미진진한 책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저자는 시대적 상황과 한계 속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의 생각과 욕망을 생생하게 담았다. 읽다 보면 의학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각 장을 마무리할 때 독자는 이 모든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깨달으며 감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류의 발전과 의학의 진보를 향한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피어 오를 것이다. 의학에 관한 교양, 역사를 파고드는 재미, 의과에 대한 흥미를 북돋는 교양서로서 이보다 훌륭한 책은 또 없을 것이다.

### 저자소개 | 앤드류 램

현직 의사이자 작가인 저자는 의학적 지식과 유려한 글솜씨를 이 책에서 유감없이 보여준다. 특히 절제의 미덕을 제대로 발휘했다. 의학적 지식을 과시하며 어려운 전문 용어와 난해한 의학 지식을 남발하지 않고, 생생한 묘사와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선이 담긴 글을 완성했다. 덕분에 이 책을 읽고 나면 의학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얻으면서도 몰입과 흥미를 놓치지 않고 책을 읽어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독자가 선사하는 재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 위로(we:路)부터 받은 위로

 김연정 간호학과 3학년

이번 설 연휴에는 평소와 다르게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6박 7일간 필리핀 뚜게가라오·라굼 지역으로 단기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다녀온 곳이라 안 가고 편하게 설 수도 있었지만, 단기선교지가 뚜게가라오와 라굼인 것을 듣자마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뚜게가라오와 라굼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입학 당시 기독교가 아니었던 저를 기독교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고,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촌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작년 선교와 이번 선교, 조금은 더 발전한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싶었습니다. 작년엔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면 이번엔 그 순수한 사람들을 위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이었던 작년과 다르게 후배들이 생긴 저와 제 동기를

은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에게 약간의 겁을 주며 꼼꼼히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1학년 동생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열악한 선교지에 대비해 여러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고 대견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준비한 어린이 사역은 현지 아이들이 자주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 기대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지만 나름 순조롭게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뚜게가라오행 국내선을 타기 전 씻고 눈을 붙일 수 있는 호강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선교 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듯했습니다. 뚜게가라오 공항에 도착하니 실감이 났습니다. 현지에서 사역 중이신 감자선, 강정인 선교사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본부에서 짧은 예배와 인사를 나누고 나신 첫 선교지는 바이안이었습니다. 4~5시간을 등산하여 갈 뻔한 곳을 선교사님의 배려

로 버스와 트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과포화상태인 트럭으로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지만, 무사히 바이안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어린이 사역(뮤지컬, 인형극, 마술)을 보인 후 둘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로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첫 의료사역으로 현지 교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 의료선교에는 바이안과 같은 네트워크가 열악한 지역에서도 각 진료 파트가 환자 차트를 공유할 수 있는 차트 시스템을 적용해 보았고, X-ray, 초음파, 소아과, 이비인후과, 외과 수술, 산부인과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된 진료였지만 모든 팀원이 원래 해왔던 일인 듯 빠르게 적응하여 하나의 병원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긴 시간 동안 기다린 현지 교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피곤함이 행복함과 뿌듯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트럭과 버스를 타고 뚜게가라오로 이동했습니다. 바이안에서 첫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이동하며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해질녘 넓은 옥수수밭과 언덕 같은 여러 산을 보며 팀원들과 부른 찬양은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더 힘내자고 전하는 듯했습니다.

뚜게가라오 본부에서 SFC 집회에 참여하여 젊은 형제자매들의 신앙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긴 집회에 지치기도 했지만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뜨거운 열기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향 같은 뚜게가라오 본부에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진과 2진이 뭉쳐 진료부터 수술까지 실시하며 더 큰 병원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현지 교인들은 여전히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큰 도움을 주진 못하지만 의료인이 된 후 방문하여 더 큰 손길을 내밀 것이라 다짐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사역을 마친 후 라굼으로 향했습니다. 라굼은 필리핀 선교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라굼에 도착하여 먼저 떠나는 팀원들과 작별 인사를 미리 한 후, 함께 찬양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라굼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로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라굼에서는 어린이 사역이 꽃을 피웠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준비해온 게임과 찬양을 함께하며 항상 행복해지는 아이들을 더 행복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현지 아이들과 하나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래에서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굼의 여러 교회 중에서도 가장 라굼스러운 제 7라굼 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친 후 이번 선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쩌면 일방적인 도움만 주고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뚜게가라오는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은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올해도 자연스레 가게 된 것처럼,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방문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선교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이번 선교를 함께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신 모든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던 이번 선교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



##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은 고신대복음병원이 도약하기 위한 디딤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오경승 병원장

### 기쁨은 짧게 누리고 다시 시작한다!

2020년이 저물어 가던 연말에 고신대복음병원이 제4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권역별 병상 수 배정 영향이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부산지역 경남동부권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지역 의료기관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까지 맞물려 고신대복음병원은 그야말로 추운 겨울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고, 2023년 12월 29일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3년 만에 우리의 고신대복음병원이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

무엇 하나 쉽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잘 준비해온 고신대복음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은 우리 병원이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디딤발을 내민 것”이라면서 “재진입에 안주하지 않고 더 신뢰하며 더 좋은 고신대복음병원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고신대복음병원이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경쟁한 병원 여러 곳이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병원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3년간 고생했던 1900여 교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난 3년은 우리가 있어야 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던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병원도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위기까지 겹쳐 정말 앞이 캄캄한 지경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경쟁을 뚫고 제5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됐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신 의대 1기 출신의 병원장으로서 뉘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복음병원의 회복을 위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만나는 분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 다시 복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는 전체 진료권역 중 경남권만 동부와 서부로 나뉘었습니다. 경남 동부권에는 대학병원 세 군데를 비롯해 여러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고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나쁘지 않은 점수를 획득하고도 경쟁에 밀려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죠.

우리는 ‘5기 평가 때는 기필코 재진입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의 경쟁병원들의 역량도 계속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료에서는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4기 평가 때도 지역 내에서 최상위급 점수를 얻었던 중증질환 점수였습니다.

부족한 전공의의 숫자는 타 진료과 의료진 수급과 입원전담의 수급으로 24명 이상을 충원해 어느 정도 점수를 맞췄으며, 응급실 중증구역과 응급중환자실, 감염병 관련 병실 등을 개소하며 대대적인 인프라 보강에 나섰습니다.

저하된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병원 개원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리 미디어! 리 스타트!를 함께 외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 됐으니, 문턱이 낮아진 병원으로 ‘종합병원에 맞는 진료로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상급종합병원과 불과 점수 몇 점 차로 당락이 좌우된 것이니 우리가 약점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상급종합병원에 재진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 지난 4기 평가에서 지적됐던 ‘의사·전공의 부족 문제’ 개선

은 무척 쉽지 않은 것 중 하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적 대안이 궁금합니다.

2023 국정감사에서 한 지방대학병원은 지방의 비인기 진료과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정원 확대와 우선 배정 및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방의 전공의 부족 문제는 개별 병원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지역 수가체계 개선 및 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법제화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수 있지만, 고신대복음병원은 자체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원 촉진 대책들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헬스클러스터 우선협상대상 병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지방병원과 의사수급의 핸디캡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나라들 보면 지역별로 특성화되어 있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민국의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특성화 병원으로 도약한다면 전국의 의사들이 연구하고 싶어 찾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 앞으로 고신대복음병원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있을 새로운 변화는 도약하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입니다. 2000년대 어려웠던 시절 이후 우리는 지역 내에서 늘 쫓아가는 위치에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높게만 보였던 장애물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병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헬스클러스터 우선협상대상병원이 되는 것이 그 중요한 단추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입주하게 될 병원 앞 송도 해수욕장 일대에 입주하게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그동안 우리병원이 펼쳐왔던 진료의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롭게 유입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이 지역이 송도 해수욕장이라는 관광 인프라와 함께 의료 서비스도 대한민국 최상급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멈췄던 나눈의료와 의료선교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중증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은 부산지역에서 의료선교와 환자 섬김의 따뜻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서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섬기면서 특히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가 걸렸던 2023년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복음병원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023년과 올해 초 베트남 통안지역 선교까지 총 3번의 해외 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 기간에는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 자리를 비웠음에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좀 더 경영에 매진하고 매출에 신경 써야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한해였습니다.

2024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월 초에 베트남에 다녀왔음에도 2월 설날 연휴를 반납하고 다시 필리핀 두께가라오로 떠납니다. 교직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동참해주시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 2024년을 맞아 고신 교단 교회와 성도님들께 바라는 점 또는 하고픈 말씀 해주세요.**

2024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바늘구멍처럼 어렵게 느껴졌던 5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고신교단의 병원으로써 교단의 자랑이 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신의대 1기 출신이라는 책임감의 무게와 교단에서의 복음병원에 대한 시

선을 이제는 관심과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회복을 넘어 재도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재정적인 회복과 신앙적인 회복을 통해 복음병원 이름의 값을 세상에 나타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와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 제5기 상급종합병원 재진입 '이렇게 준비했다' 장기려 박사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중증환자 치료는 우리의 사명**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환자의 구성 상태 및 회송체계 영역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는데 암 특성화병원으로 유명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해당 영역에 있어 만점을 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승 병원장은 “환자 구성 상태는 (입원)전문진료질병군, (외래)의원중점 외래 질병 환자비율, (외래) 경증환자 회송율로 구성되는데 암 치료에 특화된 고신대복음병원의 경우, 만점기준인 50%를 상회한 60%에 육박한 (입원)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이 수치는 부산·경남권 내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나아가 (외래)의원중점 외래 질병 환자비율, 이번 5기에 신설된 지표인 (외래) 경증환자 회송율도 만점을 크게 웃돌아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점을 웃도는 점수에도 만족하지 않고 고신대복음병원은 중증환자 치료를 선도하기 위해 6동 내과계 중환자실 15병상을 증설했고, 3동 응급계 중환자실 12병상, 응급구역 6병상을 완공해 종전보다 고도화되고 세분화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벤션 최신 장비, 최신 MRI 등의 장비 도입으로 진료 장비의 첨단화를 통해 한층 더 고도화된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총 54개의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중 10개(관상동맥 우회술, 급성기 뇌졸중,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중환자실, 신

생이중환자실, 환자경험평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항목에 포함되는데 고신대복음병원은 항목별 CQI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영역에서 지속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 의사수급이 관건**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에 도전하는 모든 종합병원은 의사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가 4.0명 이하여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의료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사수급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5기 평가의 경우에는 입원전담전문의 배치가 신설돼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최종순 기획조정실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수급”이라면서 “의사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전문의 24명을 영입하여 해당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고,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영역에서도 3형 형태로 운영, 입원전담전문의 4명을 배치해 만점수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 환자 만족에 있어서 최고의 병원이 될 것을 약속**

최근 고신대복음병원은 교직원들의 협조를 구해 주차 2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고객 불만족 1위였던 주차문제를 깔끔히 지워냈다. 고신대복음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자들에게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병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빠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

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환자경험평가에서 의사영역 전국 1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펼쳐지는 환자경험평가에 대비, 의료진 2명을 선정해 1:1 전문 코칭을 실시했고 전 직원 특성화 교육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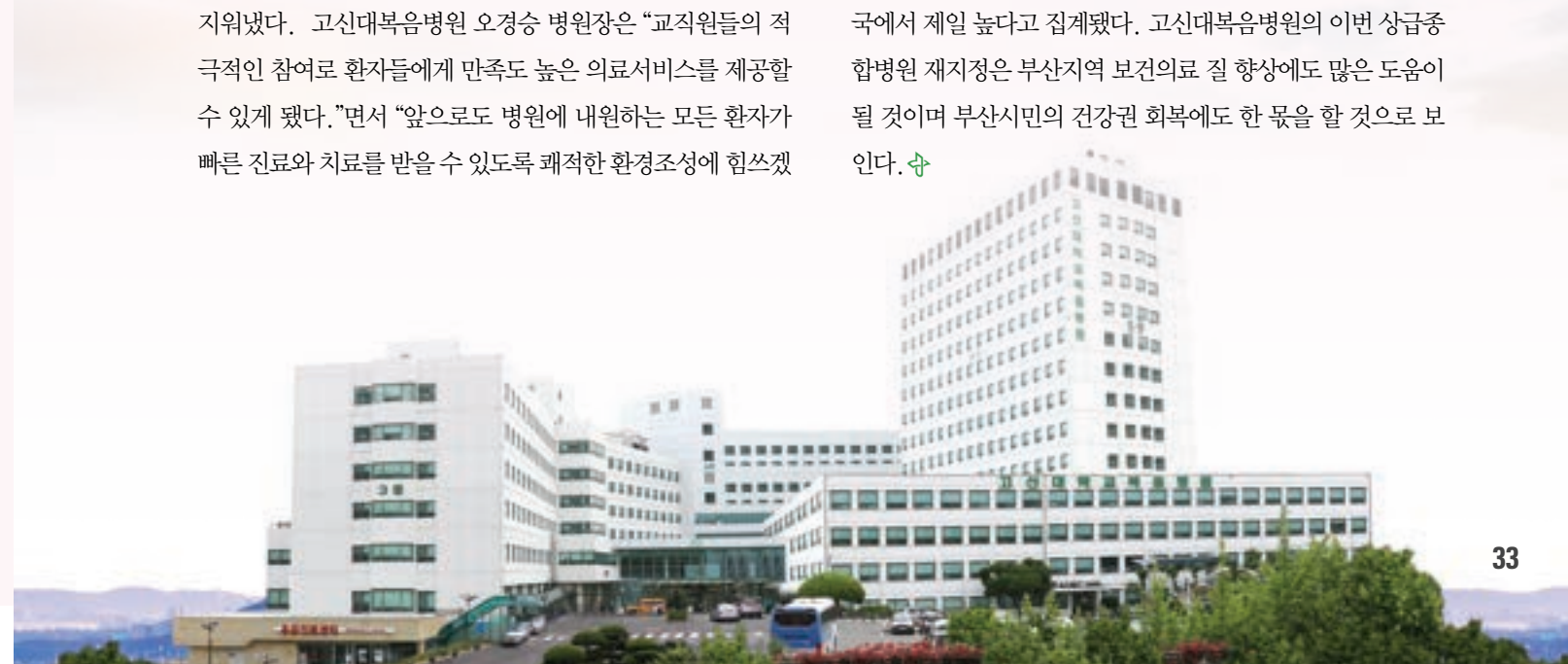
또한, 환자응대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 간호부가 앞장서 교육을 통한 자체 매뉴얼과 입원환자 투약 설명카드를 제작 배포하는 등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세심한 혁신(Careful Innovation)을 끌어내고 있다.

**㉥ 부산시민의 건강권 회복에 앞장**

1978년 지방 최초 암센터를 개소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에 강점을 가진 가운데 지난 4주기 평가에서 부족함으로 평가받았던 부분을 보완하여 철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제5기 상급종합지정평가를 준비해왔다.

병원은 “연초에 ‘리메디(Remedy), 리스타트(Restart)’라는 주제로 미래비전선포식을 열고 미래비전을 선포했다.”면서 “이 선포식에서 2023년 중점적으로 계획하는 3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그 첫 번째였던 만큼 반드시 재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기 고신대복음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 실패하면서 부산권역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숫자가 감소했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부산지역이 암과 심장질환에 있어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집계됐다. 고신대복음병원의 이번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은 부산지역 보건의료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부산시민의 건강권 회복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 · 기독교보



## 복음병원 명의를 만나다 간담도췌장외과 최영일 교수

### 신뢰하는 병원 지역사회에 좋은 의료 혜택 주고파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 최영일 교수는 외과 의사입니다. 간, 담도, 췌장과 담낭(쓸개)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간담췌외과 의사 중에서도 간 이식을 주로 하고 있어요. 간 이식 수술은 이식외과 팀(신동훈, 최영일, 문형환, 조지훈 교수)으로 시행하고, 간과 관련된 수술은 간암, 간 절제 등과 담도나 쓸개, 췌장암 수술을 합니다. 대학병원이고 상급종합병원이다보니 아무래도 암 수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이식 수술을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중 ‘간 이식 수술’은 고난도 영역으로 미세수술을 포함해 외과 수술에 필요한 모든 테크닉이 필요할 정도로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입니다.

단순하게 수술적 기술이 어렵다기보다 병원의 시설과 인력, 지원 등 모든 분야가 하나가 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 이식은 생체 이식과 뇌사자 이식으로 나뉩니다. 가족으로부터 부분 간 이식을 받거나 뇌사 기증자로부터 전체 간 또는 부분 간을 이식받는 거죠.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생체 간 이식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에 특화된 우리 병원에서는 일찍부터 이식 수술을 집도했으나 공백이 있었고, 1년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고신대복음병원 간 이식팀은 신동훈 부원장(간담도췌장외과 · 이식외과 교수)을 단장으로 다시 간 이식 역사를 이어오고 있죠.

2016년에는 부산 최초로 혈액형 부적합 간 이식에 성공했고, 복강경 간 기증자 절제술 역시 부울경 지역 최초로 성공, 간의 날을 만든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의 뜻을 받드는 데도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 특히 암 환자들은 서울에 더 좋은 대학병원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들은 그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해요. 평생 치료받아야 하는 병원인 거죠. 수술한 병원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련할 때 봤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환자가 너무나 많아서 입원 병실이 없어 응급실 간이침대에서 일주일을 지내더라고요. 병실은 안 나고, 그곳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니 치료는 해야 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 이식 수술은 물론 지속적인 치료까지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환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하죠. 좋은 의료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신동훈, 문형환, 조지훈 교수)이 달려왔어요.

여기에 있는 환자들끼리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수술과 검사받으면서 약 타드시는 것까지 오랫동안 어찌면 평생인데,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 혜택을 주고 싶습

니다.”

최영일 교수가 간 이식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된 계기는 레지던트 시절에 만난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최 교수가 레지던트였을 당시 고신대복음병원은 간 이식을 시행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젊은 어떤 아저씨였어요. 복수가 차고 말기 간 질환으로 진행됐는데, 제가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군인 정도 되는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40대에서 50대 정도였고요. B형 간염이었는데 간경화가 심해져서 사망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최영일 교수의 앞으로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간 이식이나 암 수술은 수술한 병원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병원의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해요. 그리고 특히나 간 이식 같은 이런 고난이도 수술들은 비슷한 결과가 있어야 우리 환자들끼리 고신대복음병원을 믿고 수술을 받을 수가 있죠.”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로봇 이식 수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최근에 돌아왔는데 심장이나 췌장 이식 수술이 로봇 수술로 자유롭게 많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잘 준비해서 그런 수술들이 우리 고신대복음병원에서도 시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빠른 회복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고신's 스토리

# 치료는 환자와 의사가 같이 가는 동행입니다

## 김재현 교수



배가 아프면 병원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소화기내과'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삼키면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음식이 넘어가는 통로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과 김재현 교수(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해운대 교회)는 위장관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자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 최선 진료 위해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다

“의술을 공부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 고등부 학생회에서 활동하면서 의료선교사의 꿈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김재현 교수의 의료선교사로서의 꿈은 그가 주변에서 사역하는 의료선교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도 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 김 교수의 내과의 길은 호흡기내과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가 소화기내과를 선택하게 된 것은 내시경 시술과 복부 전반에 대한 증상을 다루는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소화기내과에서 대장용종과 대장암을 주로 담당하면서 이와 관련된 진료와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시경으로 대장용종을 제거하는 등 내시경 시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턴 시절에 외과 수술하는 데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게 담당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환자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입니다.”

김 교수는 오늘 외래 진료가 있으면 전날 진료할 환자들의 차트를 살핍니다. 다음날 오는 환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환자들을 대면할 때 그의 살아온 인생과 그 가족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가족들이 겪는 힘든 문제들에 공감하려고 합니다. 환자와 의사로 만났지만, 같이 가고자 합니다. 치료는 동행입니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같이 걸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대변 이식으로 장의 나쁜 균 잡는다

소화기내과에서 이루어지는 '대변 이식'을 아시나요? 항생제를 많이 쓰거나 면역력이 무너지면 장 속의 건강한 세균총이 파괴됩니다.

“우리의 장 안에는 건강한 세균이 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이 대장 안에 공생하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많이 쓰면 균형이 깨지면서 특정 나쁜 균이 더 잘 자랍니다. 그러면 설사를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변 이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개 대변을 이식하는 데 거부감이 있습니다. 젊은 보호자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본인의 대변을 담아와서 공유해준 게 기억에 남

습니다.”

대변 이식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장내 세균총이 파괴되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공여받아 그것을 정제해 내시경으로 설사하는 사람의 대장 깊숙이 뿌려주면 건강한 세균총이 대장 안에 착상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는 건강한 세균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과 진료가 명확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게 어려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김 교수가 치료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대장암을 진단했을 때 암이 다발성으로 퍼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제를 써도 재발하고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이 15%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암이 재발해서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환자가 좋아지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재로서는 의료의 한계입니다. 그런 의료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미국 연수에서 면역 치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김 교수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미국 보스턴에 가족과 함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대장암에 대한 면역치료에 대해 전보다 깊이 공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항암제 치료는 독성도 많고 내성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 기전들을 이용한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이 디자인한 소화 과정에 감탄하다

환자가 좋아지는 것을 보면 의사에게 보람입니다. 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시경 시술을 하거나 항암치료를 해서 환자가 좋아지고, 배가 아파서 왔는데 약을 써서 좋아지는 등 환자를 치료해서 좋아지는 경우 큰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인 의사로서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 이든 아니든 환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낫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김 교수는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환자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봅니다.

김 교수는 박종호 장로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 찬양과 시편 1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는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인체의 신비도 느끼고 봅니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씹어서 삼키면 식도로 내려갑니다. 식도가 연동운동함으로 짜주면서 내려갑니다.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면 위에서 각종 소화 요소들이 분비되며, 위에서도 음식을 잘게 쪼개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위의 음식물이 소화된 상태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에서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대장으로 넘어가면 수분을 흡수해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식사하면 이런 과정이 알게 모르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떤 디자인 없이 자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편함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식 속에 있는 나쁜 독소나 균주들을 처리하기 위해 면역세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 인체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환자 섬긴다

김 교수는 2005년 복음병원 인턴 때부터 필리핀, 남아공, 인도 등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의료봉사활동을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김 교수는 한계에 부딪히는 의료를 넘어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한 의학 연구에도 더욱 몰두하고자 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다가 난관에 부딪힐 때 힘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복음병원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심지가 굳건하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과 더불어 기관을 살리고 병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 교수는 나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 복음병원이 있는 지역도 선교지로 생각하고 환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선의 치료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환자에게 전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 Focus View

## 제2회 기독교브랜드 대상(사회공헌분야) 수상



고신대병원(병원장 오경승)이 2023년 12월 5일(화)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제 2회 기독교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기독교브랜드 대상은 전국 기독교 단체 및 교회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작했으며 사회공헌분야는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의미있는 상이다. 고신대병원은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시작된 1990년부터 매년 교직원들이 자비량으로 의료봉사팀을 꾸려 6~7개국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필리핀 두게가라오 지역부터 남아메리카 페루 아마존 지역,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말라위 등 5대양 6대주에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구촌 이웃들에게 무료진료를 시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특히 오경승 병원장은 바쁜 병원 경영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필리핀 두게가라오와 8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지역에서 의료봉사팀에 합류하여 일정을 소화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료봉사때는 유방 악성종양환자를 병원에서 치료비 및 항공료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청해 나눔의료를 실천했다.

[2023.12.10]

## 이강대교수, 2023년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연제상 수상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이비인후과 이강대, 이형신 교수팀은 2023년 11월에 개최된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에서 진행된 갑상선암이 후두신경을 침범하더라도 미세한 암을 신경에 남겨 성대기능을 보존하고, 수술 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가하면 90%에서는 암의 재발없이 신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최우수 연제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Annals of Surgical Oncology에 게재되었고, 동 학술지 논평을 통해 우수한 연구 결과로 평가받았다. 갑상선암을 수술하는데 있어 보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기 중의 하나가 되돌이 후두신경이다. 이 신경은 성대를 움직여 목소리를 내고 숨을 쉬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갑상선암은 일반적으로 순한 경과를 가지지만, 적지 않은 환자에서는 이 성대를 움직이는 후두신경이 침범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두신경이 불가피하게 희생되어 결과적으로 성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성대마비가 생기면, 수술 후 목소리가 나빠지고, 호흡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23.12.12]

## 유방입체정위생검 부울경 최초 200례 돌파



고신대병원(병원장 오경승) 유방센터가 유방입체정위생검 부울경 최초로 200례를 돌파했다. 고신대병원은 2023년 12월 4일(월) 1동 3층 예비실에서 유방입체정위생검 200례 돌파 기념식을 개최했다. 입체정위 생검법(Stereotactic Vacuum assisted Biopsy)이란 유방 촬영과 컴퓨터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한 뒤, 엔코나 맘모토름으로 불리는 진공흡인 유방생검술을 통해 조직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정확도가 높은 것은 물론 대부분 흉터가 작고 일상 회복이 빠르다. 고신대병원은 유방센터 정성의 주임교수, 김구상 교수, 최진혁 교수 등 경험 많고 숙련된 의료진이 유방입체정위생검술을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한 수술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3.12.12]

## 최신 고압산소챔버 도입 운영 시작

당뇨발 같은 난치성 상처치료에 효과 입증



고신대병원(병원장 오경승)이 1인용 최신 고압산소챔버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적용 영역은 당뇨발(당뇨병성 족부 궤양) 및 화상, 식피술 및 피판술, 방사선치료 후 조직 괴사와 돌발성 난창 치료, 만성피로 및 항노화 치료 등이다. 이번에 고신대병원이 도입한 최신 1인용 고압산소챔버는 고압산소치료의 유일한 부작용으로 알려진 가압 중 발생하는 귀 통증을 예방하는 솔루션이 포함된 기기로 이는 국내 몇 안 되는 고성능 고압산소챔버로 알려졌다. 고신대병원 정형외과 김지연 교수는 "이번 신규 고압산소챔버 도입이 당뇨발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버거씨병, 화상, 식피술 및 피판술을 받은 환자, 방사선치료 후 조직 괴사 등의 난치성 창상 환자부터 돌발성 난창, 만성피로 및 항노화 치료까지 여러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진료과와 협력하여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8]

##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명예 회복

불합리한 권역 구분과 절대평가로 지정하는 제도한계 실력으로 증명하고 극복 중증환자, 사망률 1위의 부산, 오명 벗을 구원투수로 다시 나서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이 제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았다. 2023년 12월 29일 발표된 제 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고신대병원은 전국에서 신규 신청한 경쟁한 병원들을 따돌리고 상급종합병원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는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를 평가하고 인력과 교육, 의료서비스 수준, 공공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 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질환군 환자비율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 ▲경증 회송률 ▲입원환자 수 대비 의사와 간호사 인력배치 ▲전공의 상근 과목수 ▲교육수련영역 ▲요양급역 적정성 영역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상 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오경승 고신대병원 병원장은 "불합리한 구조적인 절대평가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재지정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들이 신규로 지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라고 말하면서 "고신대병원은 73년간 이어져온 암센터 중증 치료의 노하우가 뒷받침되고 있었기에 교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2024.01.05]

## 고신대병원, 대한진단검사의학재단 우수검사실 인증 획득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대한진단검사의학재단이 주최하는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평가에서 '우수검사실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은 검사실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검사실 운영, 진단 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임상미생물검사, 진단면역검사 등 12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인증을 받았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 10년 이상 우수검사실 인증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검사실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진단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실 업무의 품질과 안전성을 꾸준히 향상시켜 온 결과이다.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은 검체검사의 질개선을 산정에 포함되는 점수이며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들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인증 기간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유효하다.

[2023.12.24]

# Focus View

## 32년째 이어져온 롯데 자이언츠와 고신사랑회의 온정

롯데 자이언츠 상조회 소아암환우 돕기 성금전달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2023년 성탄절을 맞아 소아암 환우들을 돕기위해 롯데자이언츠 선수단 상조회(상조회장 전준우)로부터 성금을 전달 받았다. 롯데자이언츠 선수단 상조회는 지난 1992년부터 2019년 까지 소아암 환자 후원회인 고신사랑회와 함께 매년 고신대병원에서 소아암 환자 돕기 팬사인회 행사를 개최해 왔다. 암 전문 병원이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진행해 수익금을 기부하고 환아들과 어울림마당과 식사를 같이하는 등 매년 해외전지훈련을 가기 직전의 연례행사로 자리 잡아 왔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롯데선수단 상조회는 병원 방문 대신 성금 기부를 통해 소아암 환우 돕기 활동을 지속해왔다. 올해 제 32회 고신사랑회(회장 김순아) 만민의 자리에 전달된 선수단 성금은 전액 소아암 환자 돕기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선수단 상조회 회장 전준우 선수는 "고신사랑회 소아암돕기 행사를 부득이하게 기금 전달로만 대신하게 돼 아쉽다"면서 "소아암 환아들에게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신사랑회 김순아 회장은 "1년 동안 동료들과 모은 성금을 해마다 전달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며 "롯데자이언츠 상조회의 30년 이상 이어온 우정과 정성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23. 12. 28]

## '특수건강진단기관 최고등급(S등급) 획득'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 직업환경보건센터는 2023년 12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주관한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기용제, 중금속,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건강진단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은 2년마다 분석 능력, 시설·장비 성능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총 1,000점이 만점이며 고신대병원 직업환경보건센터는 958점으로 최고등급 S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 건강검진 분석능력, 직업병 감시체계 등 전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이번 평가는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시설 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운영 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와 건강진단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진단 받았다. 오경승 병원장은 "그간 정확한 검진을 위해 검진차량 및 검진장의 의료장비 확충, 특수건강장비의 리모델링 등 진료뿐 아니라 산업체 검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성적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 19]

## 새해맞이 음악공연과 미술전시회 개최로 환우들에 힐링 선물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2024년 새해를 맞아 다채로운 문화 전시 공연을 환우들에게 선물했다. 1월 18일(목) 오후 4시 고신대병원은 장기려 기념암센터 중앙로비에서 CTS 남성합창단 초청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 CTS 남성합창단은 부산지역 기독교를 대표하는 실력파 합창단이다. 고신대병원은 미니 갤러리도 개설하여 미술작품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갤러리 H와 함께하는 미술전시회는 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송호준 작가를 시작으로 이명순, 박보경, 김도희 작가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4~20호 20여점이 전시된다. 갤러리 H는 지난해에도 4인 작가의 순회전시를 성공적으로 고신대병원에서 진행한 바 있다. 오경승 병원장은 "새해를 맞아 그리고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기념하여 환우들에게 정서적인 힐링을 선물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라고 말하면서 "병원을 찾는 환우들이 음악을 감상하고 미술작품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쾌유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01. 18]

## 이강대 교수, 병원측에 발전기부금 1500만원 전달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 이강대 연구부원장이 병원 발전을 위해 1500만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강대 교수는 1월 22일(월) 병원 로비에서 열린 기부자의 벽 제막식에서 발전기부금 1500만원은 병원측에 전달했다. 이 교수는 대한갑상선학회 회장,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회장,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 학회 회장, 초대 아시아태평양 갑상선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의 대외적 위상 재고에 큰 역할을 했다. 이 교수는 광학과 의학을 융합한 근적외선 자기형광 이미징법을 개발하여 수술 중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갑상선을 보다 쉽게 발견하는 매핑(mapping) 방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여 부갑상선을 보다 쉽게 찾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는 고신대병원 연구부원장직을 수행하며 연구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교수는 "평생 근무해온 고신대병원에서 진료와 수술 및 연구활동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작은 보탬이나마 이번 기부금 전달이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024.01. 29]

## 하북공정대 부속병원 의료진 연수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난해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하북공정대학 부속병원(병원장 이계영)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고신대병원(병원장 오경승)이 최근 하북공정대학 부속병원 소속 의료진 3명 단기연수를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1월 25일 수료식을 가졌다. 해당의료진은 하북공정대학 부속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소속의사(순유항, 자오 리안잉, 시 양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개월간 부산에서 체류하며 고신대병원 성형외과와 고신대의대 동문이 재직하고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하북공정대학 부속병원은 1970년 개원한 성급(省級) 의료기관으로 1100병상, 77개 진료과에서 1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지난해 업무협약 이후 곧바로 활발한 의학 교류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의료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24.01. 26]

## 고신대병원,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 사랑과 섬김의 헌혈행사 성료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민주노총 고신대복음병원 지부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1월 26일 진행했다. 고신대병원 노사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기념하는 동시에 헌혈 가능 인구 감소와 중증 수혈 환자 증가, 전국적인 혈액 수급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사가 앞장 서서 이번 헌혈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헌혈 캠페인은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00회 이상 헌혈로 적십자로부터 헌혈유공장 명예장을 수여받았던 감염관리실 주영숙 주임을 비롯해, 50회 이상 헌혈로 금장을 수여받았던 교직원들도 이날 대거 헌혈에 동참했으며, 병원 보직자 및 노동조합 고신대지부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민주노총 고신대복음병원 이선옥 지부장은 "지난 몇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상급종합병원 탈락의 여파로 힘든 기간을 노사가 함께 견뎌왔다"면서 "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으로 혈액수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도움이 되자는데 마음을 모았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2024.01. 29]

# Focus View

## 약제부 소속 6명 약사 '제 1회 국가 전문약사 자격 취득'



2023년도 제1회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약제부소속의 6명의 약사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합격한 약사는 김정숙계장(노인분야), 이강민(심혈관분야), 이혜인, 최인정(종양분야), 하혜민, 강단비(정맥영양분야)이다. 지난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9개 과목(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에 대해 첫 국가 공인 시험으로 치러졌다. 오경승 병원장은 "전문약사 자격 취득으로 병원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약제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3]

## 고신의대 재학생이 한국-미국 의사시험 동시 합격이어 'SCI 논문 제1저자로 게재' 주인공은 고신의대 구형준 학생



고신대학교 의과대학(학장 박무인) 재학생이 한국 의사시험(KMLE)과 미국 의사시험(USMLE)에 동시에 합격한데 이어 두 편의 SCI 논문을 제 1저자로 출판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형준 학생은 Protective Effects of Melatonin in High-Fat Diet-Induced Hepatic Steatosis via Decreased Intestinal Lipid Absorption and Hepatic Cholesterol Synthesis, Endocrinol Metab. 2023 Oct;38(5):557-567. (impact factor 3.4, 고신저자 김부경교수), Predicting Safe Liver Resection Volume for Major Hepatectom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J Clin Med. 2024 Jan 10;13(2):381 (impact factor 3.9, 고신저자 문형환 교수)의 논문을 제 1저자로 게재 하였으며, KMLE에서 상위 5%이내, USMLE 상위 10% 이내의 성적을 획득했다. 재학생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성과를 달성했다.

[2024.02.16]

## 전국적 명성 '척추명의' '당뇨명의' 초빙, 3월부터 진료



심대무 박사



박성우 박사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척추치료 분야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심대무 박사와 당뇨병 치료의 권위자 박성우 박사를 초빙해 3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대표 의학프로그램인 'EBS 명의'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모두 출연한바 있는 심대무 박사는 미국 클리블랜드 대학교와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척추 신경마비 연구에 참여하고 대한정형통증의학회장, 대한척추외과학회 척추연구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논문 70여 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학계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대중화된 척추 수술현미경을 정형외과 척추 수술에 최초 도입해 보다 정교하고 밀도 높은 수술을 가능하게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박성우 박사는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겸 당뇨혈관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을 거치며 당뇨병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교육에 앞장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당뇨치료의 권위자이다. 박성우 박사는 당뇨치료뿐 아니라 (사)한국당뇨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당뇨병의 예방 그리고 당뇨병환자와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활동을 활발히 펼쳐 온바 있다. 특히 올바른 당뇨관리를 위해 당뇨소식지 발행을 비롯해 당뇨축적캠페인, 당뇨강연세미나, 성인당뇨캠프 등 여러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국내 당뇨캠페인의 선구자로 꼽히고 있다.

[2024.02.23]

## 로봇 유방절제술 배우러 호주에서도 찾았다



로봇 유방절제술에 대한 해외의료진의 참관과 교육이 지난해 12월 21일 진행했다. 그동안 국내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매월 한차례씩 진행되던 로봇을 이용한 유방암 교육이 이제는 해외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고신대병원 로봇유방수술팀은 2020년 11월 30일 로봇유방암수술을 처음 시행한 후 만 2년 10개월여 만에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간 동안 100례를 돌파하기도 했으며 지난 분기 단일 수술건수 개인 집도 22회를 기록하며 3분기 전국1위, 병원 단위로는 고신대복음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로봇유방수술을 2번째로 많이 집도한 병원으로 집계되는데 기여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에는 세계 최대의 로봇수술 장비업체인 인튜이티브서지컬사로부터 'RNSM (Robotic Assisted Nipple Sparing Mastectomy)' 로봇을 사용한 유두 보존 유방암절제술에 관한 참관교육센터로 지정받았다. 국내 대학병원의 유방외과 의료진들의 단기참관과정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해외 의료진이 부산지역 병원을 방문하여 로봇수술을 참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방암 관련협회와 단체의 소개로 로봇유방암 수술을 배우기 위해 고신대병원을 찾은 호주 레이크 맥케이리 병원 소속인 외과 의사 셀 박은 "교육의 집중도가 높고 효율이 높았고 교육해주는 교수님의 열정에도 감동을 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고, 다른 의사들에게도 교육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2023.12.31.]

## 몽골 법조인 협회 건강검진 및 MOU 체결



몽골 법조인협회(MongolianBAR Association) 회원 15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양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된 몽골 법조인협회는 7000여 명이 소속된 파워 엘리트 집단으로, 몽골 내 한국 의료관광 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광산업육성과 유승의 웰니스의료팀장은 "자발적 교류 확대를 통해 웰니스 부산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를 맡은 세정글로벌과 고신대병원도 이번 방문에 이어 매월 두 차례씩 부산 및 바다 관광과 웰니스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신대병원은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시범운영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몽골에서 사업을 수행했다. 몽골 국립 1, 2, 3병원, 공무원병원, 국립암센터, 트라우마센터, 모자센터, 몽골아르한가이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의료진출의 모범사례로 나눔의료와 의사연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24.02.26.]

## 제 58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고신대복음병원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병원 1동 3층 예비실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호스피스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호스피스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같은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뜻한다. 고신대병원은 지난 199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두 차례씩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말기 암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호스피스 봉사자 육성에 힘썼다. 고신대병원의 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말기 암 혹은 말기 만성폐쇄성폐질환, 말기 만성간경화 환자들이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신체 증상관리 자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4.02.28.]

# 외래진료시간표 (2024년 3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간내과 990-6101	이상욱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서광일			●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박현준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	●	●	●	●		●	●	●	●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전공의		●		●		●		●			간내과 일반진료	
심장내과 990-6105	차태준	●	●	●	●				●	●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정호	●			●	●			●			심혈관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김현수		●	●		●			●			흉통, 호흡곤란(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혈관질환, 심부전, 고혈압	
	임성일	●				●	●	●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봉준	해외연수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수진			●			●			●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여성심장
내분비내과 990-6102	박성우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김부경	휴진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갑상선암
	박태훈		●	●					●	●	●	갑상선, 내분비(당뇨)질환	
	김봉천	●			●		●	●					
혈액종양내과 990-6107	신성훈	●		●			●		●	●		두경부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호섭		●	●	●				●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			●			●		●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				●			●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현엽	●		●			●				●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소화기내과 990-6103	박선자	●	●	●	●	●	●	●	●	●	●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박무인	●	●	●	●	●	●	●	●	●	●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기능성위장관질환, 소화기암	
	문원	●	●	●	●	●	●	●	●	●	●	크론병, 궤양성대장염클리닉, 소화기질환	
	김성은	●	●	●	●	●	●	●	●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위암, 식도암, 소화기질환	
	김재현	●	●	●	●	●	●	●	●	●	●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대장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정경원	해외연수											치료 내시경 (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킬라지아 (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손민영	●	●	●	●	●	●	●	●	●	●	●	소화기 일반질환
호흡기내과 990-6104	정만홍				●					●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태원	●				●	●	●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			●		●		●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신장내과 990-6108	임학	●					●	●	●			신장질환, 시구체질환, 신중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연순			●	●				●	●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 (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신호식	●	●				●	●		●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매주 금요일 오전※	
	김예나		●	●	●						●	신장질환	
	박병화										●	신장내과 일반진료	
방사선종양학과 990-6395	박경란	●		●			●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				●	●		●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최지훈			●	●	●				●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유제상	●	●		●						●	●	두경부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마취통증의학과 990-6267	류시정	●							●			통증관리	
	김두식			●						●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김주덕	해외연수											심폐마취
	강동희				●						●	●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욱						●	●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성형외과 990-6131	박진형		●				●	●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형석	●	●							●		당뇨발, 욕창, 피부암, 눈성형, 두경부재건, 소아성형	
	김홍일	해외연수											수부질환, 수부외상, 천천기형, 두개안면외상, 피부종양, 흉터성형
	김윤수			●	●						●		유방재건 및 유방성형, 체형성형, 미용/흉터 성형, 피부종양, 안면골절
재활의학과 990-6156	김기찬	●		●						●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정호중		●				●	●			●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심영주		●				●	●	●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정형외과 990-6130	권영호	●						●				수부, 주관절, 흉곽출구증후군	
	정소학			●						●		근골격계 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창수		●					●			●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지연	●					●			●		족부(발, 발목)질환 및 스포츠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심대무			●	●	●		●		●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안과 990-6140	이상준		●		●				●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승욱	●					●			●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창주		●					●		●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임준현			●				●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 외래진료시간표 (2024년 3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가정의학과 990-6155	최종순		●	●					●	●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 요법, 특이증상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완화의학, 노인의학
	공은희	●	●			●	●					암생존자 통합 건강관리, 임상영양, 가족건강관리, 금연, 기능의학
	강지훈			●	●					●	●	암 경험자 평생 건강 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 클리닉, 유전체 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노인의학
핵의학과 990-6660	김희영		●				●					핵의학과 일반진료
정신건강의학과 990-5070	김호찬	●	●				●	●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뇌병증 (조현병, 기분장애)
	이상신	●				●				●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암환자정신건강클리닉
	김현석			●	●			●	●			소아청소년정신의학 (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 성인기의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 ADHD, 성인 발달/지적장애) 및 보호자 교육 : 매주 목요일 오후
산부인과 990-6120	김원규			●	●				●	●		부인암, 종양,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이태화	●	●			●		●				부인암, 내시경수술, 조산
	오영림	●					●	●	●			부인질환, 산과
	윤항구			●						●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산부인과 질환 로봇 수술센터
	강태경					●		●				일반 부인과 질환, 부인과 내분비학
	김은택					●	●					부인질환, 부인 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로봇수술, 내시경 수술(부인암 분과전문외)
위장관외과 990-6182	윤기영	●	●					●				식도, 위장, 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식도역류질환, 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수술
	김기현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기질종양), 대사비만수술
	김윤홍								●			위장관외과 일반진료, 복강경, 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대사비만수술
두경부, 갑상선 내분비외과 990-6113	이지은	●		●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최소절개수술
	김구상		●					●				로봇갑상선수술(경구, 액외),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조직검사, 세침검사
	양송이	해외연수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유방외과 990-6113	김구상	●	●			●			●			로봇유방암수술, 유전성 유방암, 입체정위생검
	최진혁	해외연수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종양성형클리닉
	정성익		●	●	●			●		●	●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대장항문외과 990-6181	안병권			●				●				대장,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이승현	●	●			●	●		●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훈	해외연수										대장, 탈장, 복강경 로봇수술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990-6112	신동훈	●	●						●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영일			●	●					●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췌클리닉
	문형환					●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조지훈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응급외과 990-6359	정주원				●							응급외과
	이철민								●			응급외과
	김영식						●					응급외과
알레르기내과 990-6152	김희규	●	●			●		●	●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최길순	해외연수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오지현			●	●		●			●		만성 기침,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등
비뇨의학과 990-5078	류현열	●				●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최 성		●	●				●	●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김택상	●				●	●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서원태				●					●		비뇨기계 일반질환
흉부외과 990-6127	박성달	●							●			일반흉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김종인		●	●	●							일반흉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하지정맥류, 흉부외상
	조성호				●	●	●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이해영	●	●					●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정맥질환, 흉부외상, 성인심장질환, 체외막산소화장치
	고택용						●		●	●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문정민			●		●			●			투석로, 말초혈관 질환, 대동맥 질환
신경과 990-6106	이상호										●	일반흉부, 기흉, 흉부외상
	유봉구	●		●	●	●						뇌졸중, 치매, 두통
	김명국		●		●	●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김민정									●	●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전병준		●				●	●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이진형			●	●					●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치료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990-6136	이강대	●						●	●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도 모니터링 수술
	이환호		●				●	●				중이염, 어지럼증, 이명, 난청, 인공와우이식
	권재환			●	●					●		중이수술, 난청, 이명, 어지럼증, 귀의 명중, 성충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고막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볼 켈로이드, 중이 진주종 비파괴적 제거, 비성형, 안면재건, 안와골절, 비골골절, 코피, 산재 특별 진찰
	이형신	●			●	●						두경부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김주연		●	●					●			일반이비인후과질환,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무호흡증, 코성형 클리닉
김영준			●			●			●		두경부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소아청소년과 990-6123	홍유라				●			●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유진							●		●		미숙아 및 신생아 질환 (신생아 발열, 신생아 황달, 저체중 출생아, 저온내성장 지연, 과체중아, 무호흡,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태반혈관 증후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형성 이상, 신생아 감염, 신생아 dimple, 배꼽 옥아종), 영유아간염, 예방접종	
	이정현	●						●		●		성장클리닉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이상질환 (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갈증 및 빈뇨 등), 장애, 기타 영양장애	
	연규민	●						●		●		소아신경질환 (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섬김	●			●				●		●	소아혈액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정민영	●	●	●						●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중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천식/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침, 폐렴, 간질성폐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등), 중환자역학
	최소윤			●				●			●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낭),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신경외과 990-6124	조혁래	●	●				●					뇌종양, 두개저용양,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	●				●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박민철			●	●				●			신경외과 척추질환, 척추 및 두부 외상	
	김도연	●	●					●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용우						●	●		●	●	뇌혈관 질환, 뇌종양,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피부과 990-6146	장민수	●	●				●	●				여드름/주사, 건선, 피부미용, 손·발톱색소질환	
	서기석			●						●	●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박종빈	해외연수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성설화			●	●				●	●		피부과 일반진료	
일반내과 990-6359	손종원	휴진										일반내과 일반진료	
호스피스완화의료과 990-6359	정원길	●		●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류마티스내과 990-6154	김근태	해외연수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건선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통풍, 골관절염, 섬유근통, 혈관염, 배체트병, 관절초음파클리닉	
	김윤경	●		●	●			●	●		●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배체트병, 관절초음파 클리닉
감염내과 990-6157	진 슬			●								감염내과 일반진료	
치과 990-5150	김희진	●	●	●	●	●	●	●	●	●	●	치과보존과 일반질환	
	서고은	●					●	●			●	●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 감염, 외상, 임플란트, 맥복치, 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은숙			●	●	●				●	●	치과보철과 일반질환	
	김민경	●	●					●	●	●		치주과 일반진료	
직업환경의학과 990-6742	김정원		●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 (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			●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 KOSin 사랑in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당신은 사랑in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직원들은故장기려 박사님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국내·외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우들의 치료에 힘쓰고, 의료 활동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저희들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 꽃

-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의사라 부릅니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라 부릅니다.  
의로운 의사라 부릅니다.  
바보의사라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살려 헌신하길 원하는  
백년의 약속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오늘도  
전인치유를 실천 합니다.

---

